

양돈은 내 운명

주 미 숙

초등학교시절 우리 동네 한가운데는 작은 돼지우리가 있었다. 동네 한가운데라는 특성상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등교를 할 수가 없었다. 물론 10분쯤을 더 등교길에 투자할 맘이 있다면 동네를 외곽으로 도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늘 시간에 쫓기는 등교길인지라 그길이 유일하다고 보는게 옳았다.

지금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당시는 갖은 음식찌꺼기가 널부러진 먹이통도, 여름이면 들끓던 파리떼도, 길을 가로질러 설새없이 흐르던 오물들도, 시도때도 없이 뽁뽁 고성방가를 서슴치 않던 것도 모두 묵인되던 때라 그 돼지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6년동안 줄어들지도 커지지도 않은 채로 늘 동네 한가운데에 건재했었다.

어린 내겐 그 길을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지나야 했던게 참 곤욕이었다.

혹시 내가 지나갈 때 똘똘 반가운 맘에 꿀꿀 노래라도 불러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실수로 그 오물들이 내게 튀진 않을까하는 불결한 두려움. 들끓던 파리들이 내 어깨를 빌어 집에까지 따라오지 않을까하는 걱정들...

처음 돼지를 키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건 그 곤욕스런 기억이었다. 단 한번도 그 곤욕스런 기억 속의 돼지들이 내 밥줄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살고 있는 곳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전혀 낯선 양돈이라는 직업 또한 스물여섯인 내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곤욕스런 기억에도 불구하고 큰 갈등 없이 선택을 했고 선택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됐던 일들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양돈은 내 운명'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다. 특히 중평 양돈협회 간사를 하기 시작한 근 2년 동안은 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가을 이사로 복적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딸랑 세 식구만 남았을 때 그 막막하고 외로웠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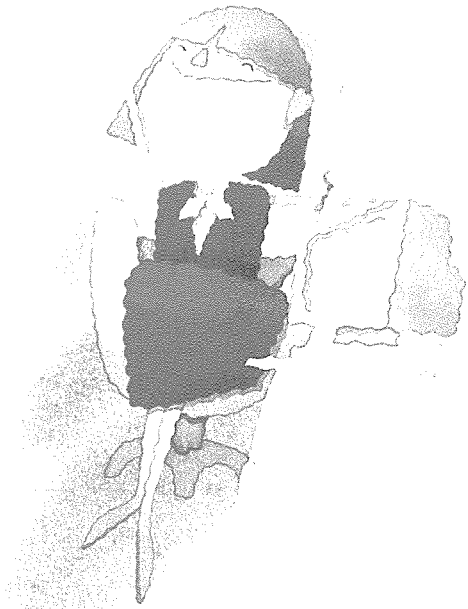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오는 그 생각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위안은 6개월이 막 되었던 돼지띠 아들이었다. 그아들이 돼지띠라는 것이 양돈과의 인연을 미리 예견한거라 억지스런 주장으로 희망을 가지려했고, 성공의 필연성을 부여하고자 애썼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올해로 11년째. 젓을 댄 자돈들이 창너머로 들여다보자 한구석으로 다물려가더니 일제히 나를 찌려(?)보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두렵기도 했고, 덩치가 내 몸 두배나 뭉적한 모돈이 지나갈 때면 문꼬리를 잡고 벌벌 떨기도 했었다. 나만 그랬으랴... 겨울 오후 박차고 나온 돼지 한 마리와 농장 옆 인삼밭에 들어가서 두 시간여나 추겨전을 벌이다 지쳐서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울어버렸다는 울 오빠. 그때가 겨울이었기 망정이지 한여름이었다면 인삼 값 기천만원은 물어줬어야 했을 것이다. 꼬리를 처음 자르던 날 버둥거리는 작은 돼지들이 불쌍해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는 우리 올케. 분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품 짝을 못해 온몸에 똥칠을 하고 병원에 실려 갔던 우리 신랑.

폭설로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다 떨어져 후유증으로 아직도 다리를 절고 계시는 아버님. 돌아보면 덤덤히 때론 살포시 미소까지 짓게 하는 순간순간은 생경한 직업에 익숙해지느라 무던히도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던 같다.

해도 서로서로가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시간이기도 하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양돈협회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많은 시간을 돼지 생각만 하고 산다. 하루하루 시세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 호흡기 질병들로 죽어나가는 돼지 때문에 울상인 사장님들 얼굴이 이제는 활짝 웃었으면 하는 바램, 여름이 다가오면 주위의 민원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램. 사료값이 덜 올라서 농가 수입이 더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 잘 먹고 빨리 커서 출하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 각종 환경 문제 때문에 더는 양돈을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덜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양돈농가의 허리를 펴기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

지금 추진중인 브랜드 사업이 잘 되어서 경쟁력있는 돈육이 생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으면 하는 바람... 바람...

얼마전 한 지역 방송국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삼겹살'이란 말이 이곳 증평에서 유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저 다른 곳에 비해 삼겹살이 맛이 있는 거겠거니만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유명했었나 보다. 하기야 부산에 서 놀러온 동서가 이곳 고기를 먹어보더니 전화할 때 마다 이곳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늘 먹으니 모르다가 다른데 가서 고기를 먹으러 치면 애들이 먼저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걸 보면 확실히 그런 모양이다. 매년 치뤄지는 삼겹살축제에 참석하는 외지분들도 시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판매는 안하느냐고 자주 물어 보시는 것도 그렇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제는 고기의 빛깔로도 맛있고 없음을 구별할 줄 아는 혜안을 가지게 된 듯하다. 6년 배내 돼지의 공포 속에 살던 초등학교 꼬마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기억으로 힘들었던 내가 이렇게 변해 있으니 10년이란 시간이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았던 시간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다. 더위에 민감한 돼지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행히 겨우 배내 호흡기로 애를 먹던 농가들이 안정에 들어가긴 했지만 또 이 여름을 잘 견뎌낼지 모르겠다.

비가 올 것 같다. 농사일과 더불어 할 일이 많아진 회원들 한 달이 넘도록 얼굴 한번 뵈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비가 오면 좀 한가해 지셔서 얼굴들을 뵈 수 있을런지... 오랜만에 뵈는 분들 얼굴이 활짝 개여 있으면 좋겠다. 양돈

